

독일 역사주의의 긴 그림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 분석*

문수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이 글에서는 독일어 역사서에 대한 양적, 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경성제국 대학 서양사 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접목시켜봄으로써, 경성제국 대학 도서관이 식민지 운영에서 가졌던 위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먼저, 독일어 장서들은 다양한 역사학 방법론 저서들과 저명한 역사가들의 전집류, 전 세계 구성구석을 망라하는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목격한 세계사 및 문화사 전집류 등을 통해서 경성제대가 지향하던 보편적 교양주의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쟁 관련 자료들,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망라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나치를 조망하고 있는 저서들, 그리고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대한 사회 정책 자료들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불어 장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제국 경영을 위한 권력 의지가 일반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역시도 뚜렷했다.

다음으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독일어 장서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 교육자이자 연구자, 특히 유일한 서양사 분야 연구자이던 가네코 고스케가 독일사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역사서들은 영어, 불어 장서들과는 달리 경성 제국 대학에서 행해졌던 강의와 연구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독일 역사주의의 영향력이다. 랑케를 위시하여, 드로이젠, 트라이츠케, 마이네케, 부르크하르트, 루드비히 리스 등 독일 역사주의 거장들의 저서들은 거의 남김없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실제로 가네코는 이 역사주의 거장들의 저서들을 그의 교육과 논문에 활용하였다. 루드비히 리스, 마이네케, 랑케의 저서들을 강의에 활용하였고, 이들의 저서들을 가네코가 이 시기에 집필한 네 편의 논문들의 각주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네코 고스케는 역사주의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한 인물이었다.

주제어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가네코 고스케, 독일어 장서

I. 서문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경성제대 도서관에 대한 연구 역시도 활발한 편이다. 정준영은 경성제

* 이 연구는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대가 식민 당국과 서양인 선교사들, 식민지 민중들 사이의 치열한 경합의 산물이었다고 쓰고 있다(정준영, 2010; 2011).¹ 조선총독부가 경성제대를 식민지 대학이면서도 최고 학부인 제국대학의 형식으로 만들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상호 경쟁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편으로 체제 순응적 친일 엘리트층을 기르고 동시에 식민지 조선 안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식민자의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학문적 자율”, “연구 중심” 등 제국대학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학문의 메카로 성장해 갈 것에 대한 기대 역시도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구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 장서 중 독일어 역사서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모순된 기대 및 위상이 어떻게 도서관 장서 구성에서 투영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성제대 도서관을 개괄하고 있는 논문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의 형성과 운영”에서 정근식은 “수집된 장서들을 각 언어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집의 주체나 과정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근식, 2010: 41). 그러나 그 자신이 이미 강조하고 있듯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장서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밝혀 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들어온 날짜, 서적상 등의 간략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도서원부가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정근식, 2010: 55), 구매의뢰서, 혹은 도서대출대장 등 도서의 구입과 활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물로서 남아있는 장서의 구성을 분석하는 것만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어 장서(권윤경, 2015) 및 영어권 장서(윤영희, 2016)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이미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독일어 장서 구

¹ 정준영은 프랑스의 동화주의와 일본의 동화주의를 비교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동화주의가 최소한 이념적으로는 인권의 차원에서 토착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일본의 동화주의는 민족의 차원에서 토착민들의 일본민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본다(정준영, 2011: 164). 그 결과 토착민 엘리트 자제들에 대한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던 서구 열강의 식민 교육과 달리, 일본의 경우 토착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을 당면 과제로 삼았을 뿐, 고등교육 기관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제국대학 설립은 이러한 태도에 맞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는 조선인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성이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권윤경은 프랑스어 장서 구성을 분석하는 가운데, “보편적 교양주의의 중요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보편적 교양주의라는 식민 권력의 헤게모니가 일사불란하게 작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 이질적이고 독특한 장서 구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권윤경, 2015: 236). 영어권 자료를 분석한 윤영휘 역시도 “전집, 일반 교양서, 저명학자의 저서들이 면밀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결과 제국대학 도서관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독특한 장서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이로써 보편적 교양주의라는 의도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윤영휘, 2016: 426).

소장된 독일어 서적들은 한편으로 식민 당국의 일관된 의도가 반영되기에 좀 더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 영어 및 불어 서적은 소규모로 전문 서적상이나 구매 대행업자들을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한 책들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권윤경, 2015; 윤영휘, 2016). 그러나 독일어 서적은 특정 학자의 소장 도서 전체를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26년 로마 법학자 페르디난트 크니엵(Ferdinand Kniep)의 장서 5,639권, 경제학자 베르너 쪼바르트(Werner Sombart)의 장서 3,254권, 오스카 뮌스터베르크(Oskar Münsterberg)의 장서 366권, 프리드리히 테츠너(Friedrich Tezner)의 도서 967권이 일괄 구매되었다(정근식, 2010: 56-57).

반면, 1926년에 임용되고 28년부터 41년까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한 가네코 고스케(金子 光介)가 독일사 전공이었던 점은, 최소한 독일 역사 관련 서적들의 구매에서 일관성 혹은 지적인 방향성이 반영될 여지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어 역사서에 대한 양적·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경성제국대학 서양사 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접목시켜 봄으로써,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 식민지 운영에서 가졌던 위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영국사, 프랑스사 장서들은 사학과와 연구와 교육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반면, 경성제대 도서관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가네코 고스케가 독일사 연구자였던 만큼, 독일어 역사서들은 그 ‘활용’의 경로 지도가 좀 더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을 법하다.

경성제국대학에서 도서가 구매되는 과정은 ‘아이디어’들 간의 위계가 정해지고, 특정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대가로 식민지 도서관에 자리잡는 반복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교직원, 학생, 식민행정당국, 서적상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이러한 선택들은 결국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을까? 여기서 보이는 방향성은 얼마나 ‘식민지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었을까? 물론, 나치에 대한 저서를 친나치적인 의도의 반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최종 산물인 장서들을 어떤 정치적 의도의 즉각적인 반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서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경성제국대학의 교육 과정 및 연구 성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성제국대학이 가졌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를 수는 있을 것이다.

II. 독일어 역사서들의 특징들

H 계열로 분류된 역사서 중 영어 역사서는 2,088권이지만, 윤영휘의 연구에 따르면, 복본이 존재하거나 동일 제목의 서적이 여러 권으로 나뉜 경우들이 있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영어 역사 장서의 총수는 1,364권이다(윤영휘, 2016: 431). 권윤경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어 역사서는 430여 종이였다(권윤경, 2015: 214). 이렇게 본다면 1,562권인 독일어 역사서는 단일 언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학 방법론

독일어 역사서 구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역사학 방법론에 대한 저서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영어권 역사 이론 서적이 29종에 불과하고(윤영휘, 2016: 442), 프랑스어 역사 이론 서적은 3종에 불과했다(권윤경, 2015: 218). 이처럼 역사학 이론서들이 독일어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역사학이 독일 역사주의에 근간을 두고 발전해 갔던 데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1928년부터 1941년까지 13년간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친

가네코 고스케뿐만 아니라, 전원 도쿄대학 사학과 출신들이던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교수들이 독일 역사학계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 요한 드로이젠(Johann Droysen)²의 제자로서(김영한, 2010; 조한욱, 2012) 도쿄대학 사학과에 오랫동안 재직하던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뿐만 아니라, 무쓰쿠리 겐파치(箕作元八), 무라카와 겐고(村川堅固)가 모두 독일에서 유학하여 랑케의 지적인 자장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역사주의에 근거한 역사학 방법론 저서에 대한 수요는 사학과 전체에 걸쳐 존재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드로이젠의 『사학강요(Grundriss der Historik)』, 프리드리히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의 『역사주의의 생성(Die Entstehung des Historismus)』, 루드비히 리스의 『역사(Historik)』 등 다양한 역사주의 방법론 저서가 소장되어 있을 수 있다. 빌헬름 바우어(Wilhelm Bauer)의 『역사학으로의 입문(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Geschichte)』, 에른스트 베른하임(Ernst Bernheim)(노명환, 2006: 386)의 『역사학 방법론 교과서(Lehrbuch der historischen Methode)』와 『역사연구와 역사철학(Geschichtsforschung und Geschichtsphilosophie)』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법하다.

역사학 방법론을 찾아 독일 역사주의에 가닿았던 관심은 역사주의를 넘어서서 독일 역사학 방법론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듯하다. 역사주의의 대가들 이외에 근대 학문적 계보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오토카 로렌츠(Ottokar Lorenz)의 『주된 방향과 과제로 본 역사학(Die Geschichtswissenschaft in Hauptrichtungen und Aufgaben)』, 자유주의자 게오르크 고트프리트 게르비누스(Georg Gottfried Gervinus)의 『역사학의 특징(Grundzüge der Historik)』 등도 역사학 입문 교재들이다.

그런가 하면 친사민당 계열의 역사가이자 중세사가였던 지그문트 헬만(Sieg-

² 김영한, 조한욱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그가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에서 드러나듯이 고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드로이젠은 또한 역사는 “인류”에 따른 진보로 보았고, 그 “인류”의 힘들이란 가족, 언어, 종교, 법, 학문을 의미했다. 그는 자연과 역사를 대비시켜, 자연의 경우 법칙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역사의 경우 탐구하면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분야가 현격히 다르다고 선언한다. 그는 랑케 등의 역사학과와는 달리 역사가가 객관적인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탐구하는 이해”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인식된 것의 재인식”일 수밖에 없는 역사 인식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mund Hellmann)의 『역사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Wie studiert man Geschichte)?』,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의 손자이자, 볼프강 몸젠, 한스 몸젠의 아버지인 빌헬름 몸젠(Wilhelm Mommsen)의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역사서술(Legitime und illegitime Geschichtsschreibung)』, 단치히 지역 전문가로서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고 동유럽 연구(Ostforschung)에 나섰던 반유대주의자 에리히 케이저(Erich Keyser)의 역사학 입문서 『역사학(Die Geschichtswissenschaft)』 등은 각각 1920, 1930, 1931년에 출간된 책들이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이를 구매하던 시점에서는 비교적 신간에 속했을 저서들로서, 독일 역사학 이론에 대한 관심이 역사주의로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역사학 입문서들 이외에 당대 유명 역사가들의 전집을 구비함으로써,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 익숙해지고자 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독일 역사주의의 대가들의 저서가 고루 구비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이네케의 『역사주의의 생성(Die Entstehung des Historismus)』, 마이네케 60세 회갑기념 논총 등 10권의 독일어 저서가 소장되어 있었다. 가네코 교수의 지적인 스승인 랑케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랑케 자신의 전집 54권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이 전집 이외에도 랑케 자서전인 『나 자신의 생애사에 대하여(Zur eigenen Lebensgeschichte)』, 그리고 브리태니커에 따르면 “그의 저서 『로마와 게르만 민족의 역사』보다 더 그의 이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³ 『새로운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neuerer Geschichtsschreiber)』도 소장되어 있다. 오이겐 구글리아(Eugen Guglia)가 쓴 랑케 전문서 『랑케의 생애와 저술들(Leopold von Ranke's Leben und Werke)』도 랑케 컬렉션에 속한다 할 것이다.

랑케와 더불어 독일 역사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던 하인리히 폰 트라이츠크(Heinrich von Treitschke)의 『역사학과 정치학의 논문들(Historische und politische Aufsätze)』 4권도 모두 구비되어 있다. 『안티 트라이츠크(Anti-Treitschke)』, 그리고 테오도어 쉬만(Theodor Schiemann)이 저술한 『하인리히 트라이츠크의 교육과 방랑 시대(Heinrich von Treitschkes Lehr- und Wanderjahre 1834~1867)』, 힐데가드

³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Leopold-von-Ranke#ref291470>(최종검색일: 2017.8.30.)

카취(Hildegard Katsch)의 『하인리히 트라이츠크와 프로이센-독일 문제(Heinrich von Treitschke und die preussisch-deutsche Frage von 1860-1866)』 등 트라이츠크에 대한 논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도서들까지 소장되어 있어 트라이츠크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드로이젠의 경우 그의 『사학강요(Grundriss der Historik)』가 각각 1925년, 1937년 두 가지 판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헬레니즘의 역사(Geschichte des Hellenismus)』 등 그의 연구서 2권도 아울러 소장되어 있다. 『사학강요』의 경우 1937년도 판본이 소장되어 있고 1937년에 출간된 일본어 번역본도 아울러 소장되어 있다. 실제로 1937년에 경성제대 사학과에서 발간되던 『사학회지』에 드로이젠의 『사학강요』에 대한 서평이 실린 바 있기도 하다.⁴ 이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학문 활동 간의 분명한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드문 예이기도 하다.

드로이젠, 트라이츠크와 더불어 랑케의 후학이자, 독일의 유서 깊은 역사학 잡지 『역사학보(Historische Zeitschrift)』를 1859년 창간한 지벨(Heinrich von Sybel)의 경우에도 법학분야로 지정된 그의 『강연들과 논문들(Vorträge und Aufsätze)』을 포함한 지벨 자신의 저서들,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근대 독일과 그 역사가들(Modern Germany and her historians)』까지 총 7권이 소장되어 있다.

역사학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료 비판 작업을 통해 근대 역사학 방법론을 정초하는 데 기여한 에른스트 베른하임의 경우, 『역사연구와 역사 철학(Geschichtsforschung und Geschichtsphilosophie)』 등 6권의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 베른하임에 대해서는 가네코가 “랑케의 세계사에 있어서 사적 발전”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특별한 관심을 피력한 바 있기도 하다(金子, 1936: 135).

역시 역사연구에 사료 비판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서술에 불과하던 역사를 탐구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적 혁명의 선구자”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바르톨트 게오르크 니이부어(최호근, 2015: 263)의 경우, 1829년 본 대학에서 강연한 『혁명의 시대의 역사(Geschichte des Zeitalters der Revolution)』, 『작센 궁정에 맞서는 프로이센의 권리(Preussens Recht gegen den sächsischen Hof)』, 『그리스 영웅사(Griechische Heroengeschichten)』 등 독일어 저서 3권이 소장되어 있다.

⁴ 신간소개(저자 미상), “사학강요”, 『사학회지』 12집(1938), 37.

넓은 의미에서 독일 역사주의의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르크하르트의 경우 『야콥 부르크하르트 전집(Jacob Burckhardt Gesamtausgabe)』 14권과 더불어 카를 노이만(Carl Neumann)의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부르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도 소장되어 있다. 부르크하르트가 사망한 직후 잘리스(H. von Salis)가 장례식에서 행한 추도사인 『야콥 부르크하르트 교수를 기억하며(Zur Erinnerung an Herrn Prof. Dr. Jakob Burckhardt)』도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부르크하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일본어와 영어 저술들을 포함할 경우, 부르크하르트를 핵심어로 하는 고문헌 자료실 자료는 33권에 달한다. 랑케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은 경우에 속하는 역사가였다고 평가할 법하다.

이들 역사학계의 거장들을 일본에 소개한 루드비히 리스의 경우라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가네코 고스케가 두 학기에 걸쳐 교재로 활용한 루드비히 리스의 저서 『근세 문화 발전의 경로(Gang der neuzeitlichen Kulturentwicklung)』, 그리고 동경에서 출판된 리스의 강의록 『보편사에 대한 강의록(Notes of a course of lectures on universal history)』이 모두 드물게도 복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에 더해 그의 『역사학(Historik)』, 『영국사(Englische Geschichte)』 등 총 6권이 소장되어 있어, 일본사에 대한 저서를 제외한다면, 리스에 관한 한 전권이 소장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전집이 소장되어 있는 독일 역사가들 상당수가 독일 역사주의의 학풍을 잇는 인물들이었던 점은 사학과 내에서 역사주의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집을 소장할 정도의 관심이 역사주의로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대사의 대가인 몸젠의 경우에도 30여 권에 달하는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 몸젠의 저서들뿐만 아니라, 1893년에 몸젠의 박사학위 취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인 『몸젠 박사학위 취득 50주년 기념논총(Festschrift Theodor Mommsen zum fünfzigjährigen Doctorjubiläum)』, 몸젠에 대한 강연자료인 『괴테, 뵘클린, 몸젠(Göthe, Böcklin, Mommsen)』 등 몸젠 관련 자료들도 폭넓게 소장되어 있어, 몸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일찍이 1910년대에 문화사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독일사회사에 마

중물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 램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경우 『문화사란 무엇인가(Was ist Kulturgeschichte)』, 12권으로 구성된 『독일사(Deutsche Geschichte)』 등 램프레히트 자신의 저서 14권,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 등이 저술한 『칼 램프레히트(Karl Lamprecht)』, 프리드리히 자이퍼트(Friedrich Seifert)의 『칼 램프레히트의 역사 철학을 둘러싼 논쟁(Der Streit um Karl Lamprechts Geschichtssphilosophie)』 등 총 16권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독일 교수들의 기념 논총들도 다수 발견된다. 쿠르트 브라이지히(Kurt Breysig) 60세 기념논총 『정신과 사회(Geist und Gesellschaft)』, 막스 베버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후임자이던 에버하르트 고타인(Eberhard Gothein)의 고회를 기리기 위한 『3000년간의 그림과 연구: 에버하르트 고타인의 20세 생일을 기리며(Bilder und Studien aus drei Jahrtausenden: Eberhard Gothein zum siebzigsten Geburtstag als Festgabe)』, 고대사가인 오토 히르쉬펠트(Otto Hirschfeld)의 60세 생일을 기리는 자료집인 『히르쉬펠트 회갑기념 논총: 고대사와 그리스 로마의 고전학에 대한 기고문들(Festschrift zu Otto Hirschfelds sechzigstem Geburtstag: Beiträge zur alten Geschichte und griechisch-römischen Alterthumskunde)』, 고고학자 테오도르 비간트(Theodor Wiegand)의 6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테오도르 비간트 회갑 기념논총(Theodor Wiegand zum 60 Geburtstag von Freunden und Verehrern dargebracht)』이 있다. 이 경우 고타인과 브라이지히, 부르크하르트 등이 문화사 논쟁과 관련되는 인물들이었고, 히르쉬펠트, 비간트가 고대사와 관련되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우연히 수집된 자료들이라기보다는 고대사와 문화사 논쟁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자료들인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아울러, 경성제대 사학과에서는 근대적인 역사학의 방법을 정초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니만큼 역사학 용어 사전 등을 위시한 부교재가 다수 보인다. 먼저, 1938년 22쇄를 찍은 인기 있는 역사 교재이던 칼 율리우스 플뢰츠(Karl Julius Plötz)의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역사로부터 발췌(Auszug aus der alten, mittleren, neueren und neuesten Geschichte)』, 헤르만 울리히(Hermann Ulrich)의 『엄선된 독일 역사학 저서들(Die besten deutschen Geschichtswerke)』 등 편집, 발췌된 역사학 방법론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아울러 문헌학자인 오토 라덴도르프(Otto Ladendorf)의 『역사학 용어 사전(Historisches Schlagwörterbuch)』, 오이겐 하버케른(Eugen Haberkern)

의 『역사가를 위한 보조 사전(*Hilfswörterbuch für Historiker*)』 등 용어 사전류도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달력과 관련된 도서들도 눈에 띈다. 베른하르트 레어쉬(Bernhard M. Lersch)의 『기독교와 유대의 축제 달력과 더불어 다양한 민족들과 시대의 시간 계산 혹은 연대기로의 입문(*Einleitung in die Chronologie oder Zeitrechnung verschiedener Völker und Zeiten nebst christlichem und jüdischem Festkalender*)』 등 다양한 문화권의 달력이 소장되어 있다.

달력과 더불어 지도도 여러 권 발견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푸츠거(Friedrich Wilhelm Putzger)의 『푸츠거의 학교 지도(*F. W. Putzgers Historischer Schul-Atlas*)』, 에두아르트 로테르트(Eduard Rothert)의 『역사에서 발췌한 지도들과 스케치들(*Karten und Skizzen aus der Geschichte*)』, 출판업자 헤르만 율리우스 메이어(Hermann Julius Meyer)의 『메이어의 손에 쥐는 역사지도(*Meyers Historischer Handatlas*)』 등 7종에 달하는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강의의 부교재로서 활용되었을 법한 이 자료들은 학문 근대화의 초입에 서서 새롭게 시공간을 구상하고 이를 사회에 설명해야 하던 시기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하다.

2. 세계사와 문화사

주지하듯이, 역사주의란 역사의 개체성을 국가 중심으로 파악하는 정치사 위주의 역사학 패러다임이었다. 이 같은 국가 중심의 역사관은 “프로이센 주도 아래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주장했던 프로이센 학파 역사가들의 민족주의 역사관을 형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김기봉, 2004: 148). 그러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의 시기, 역사주의의 시기이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기는 동시에 보편사, 세계사, 문화사 등 대안적인 역사학 방법론이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다.⁵ 이 세계사 저자들은 개개 사건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

⁵ 이 세계사 저자들은 개개 사건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의 거대한 전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크하르트, 슈팽글러, 아놀드 토인비 등이 당대 세계사 서술의 거장들이었다. 물론 19세기 후반부터는 보편사, 세계사 서술이 학문적 역사 연구에서 사라져서 점차 인류학, 민속학 등의 영역으로 사라져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진일,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 『한

의 거대한 전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크하르트, 슈팽글러, 아놀드 토인비 등이 당대 세계사 서술의 거장들이었다.

독일어 장서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세계사(Weltgeschichte)와 문화사(Kulturgeschichte)가 키워드인 도서들이 다수 발견된다. 윤영휘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권 자료들에서도 세계사 및 문명사 관련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윤영휘, 2016: 441).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은 일본어 번역본, 1926년 판, 1939년 판 2권, 독일어의 경우에도 1923년 판 2권, 1924년 판 등 여러 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에 더해 슈팽글러의 저서에 대한 반론들을 담은 하인리히 솔츠(Heinrich Scholz)의 『서구의 몰락에 관하여(Zum Untergang des Abendlandes)』, 펠릭스 엠멜(Felix Emmel)의 『서구의 죽음(Der Tod des Abendlandes)』, 만프레드 슈뢰터(Manfred Schröter)의 『슈팽글러를 둘러싼 논란(Der Streit um Spengler)』 등도 소장되어 있다. 또한 아우구스트 메세르(August Messer)의 『철학자로서의 슈팽글러(Oswald Spengler als Philosoph)』의 일본어 번역판인 『シペングレルの哲學: 西洋の没落の紹介並びに批判』 등도 소장되어 있어,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그 외에도 세계사 관련 서적들로는, 랑케의 『세계사(Weltgeschichte)』를 꼽을 수 있다.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1896년에 출간된 4권짜리 세계사, 뮌헨에서 1921년에 출간된 8권짜리 세계사 판본이 모두 소장되어 있어 랑케,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한다. 이에 더해 대중적인 저술가이던 한스 페르디난트 헬몰트(Hans Ferdinand Helmholt)의 『25년간의 세계사(Ein Vierteljahrhundert Weltgeschichte, 1894~1919)』, 『세계사(Weltgeschichte)』 9권, 헬몰트의 책에 근거하여 아님 틸레(Armin Tille)가 1923년 편집한 『세계사(Weltgeschichte)』 9권 등이 소장되어 있다. 오스카 예거(Oskar Jäger)의 『세계사(Weltgeschichte)』 중 4권, 그리고 테오도어 린드너(Theodor Lindner)의 세계사 시리즈 중 『민족이동 이후의 세계사(Weltgeschichte seit der Völkerwanderung)』 등 첫 두 권이 소장되어 있다.

전집으로서의 세계사뿐만 아니라 파울 그뢰베(Paul Gröbe)의 『기초적인 세계사(Weltgeschichte im Grundriss)』, 알렉산더 카르텔리에리(Alexander Cartellieri)의 『세계

사의 특징들(*Grundzüge der Weltgeschichte*)』 등 보급판 세계사 저서들도 8권 소장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에두아르트 푸에터(*Eduard Fueter*)의 『지난 백 년간의 세계사(*Weltgeschichte der letzten hundert Jahre*)』 등 시기를 한정한 세계사 저서도 보이고, 파울 헤레(*Paul Herre*)의 『지중해 연안의 세계사(*Weltgeschichte am Mittelmeer*)』, 알브레히트 비어쓰(*Albrecht Wirth*)의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Ostasien in der Weltgeschichte*)』, 러시아 역사가이던 시몬 두브노프(*Simon Dubnow*)의 『유대 민족의 세계사(*Weltgeschichte des jüdischen Volkes*)』 등도 소장되어 있다.

세계사, 보편사와 같은 맥락과 이론적인 틀에서 관심을 끌던 문화사(*Kulturgeschichte*) 분야의 저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호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사적인 경향, 자연사에서처럼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 혹은 예술사적인 경향, 문명비판 등 다양한 흐름을 보이던 문화사는, 비록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망정, 19세기 후반 이후 독일 사회에서 지적인 유행을 이루고 있었다(최호근, 2005: 240-244).

문화사에 대한 관심은 제국대학 내부에도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던 듯하다. 앞서 언급된 대로 람프레히트의 문화사 관련 저서들이 폭넓게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드리히 폰 헬발트(*Friedrich von Hellwald*)의 『현재까지 자연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in ihrer natürlichen Entwicklung bis zur Gegenwart*)』 4권, 호네거(*J. J. Honegger*)의 『일반 문화사(*Allgemeine Kulturgeschichte*)』 2권, 루돌프 아이슬러(*Rudolf Eisler*)의 『독일문화사(*Deutsche Kulturgeschichte*)』, 찰스 리쉴(*Charles Richet*)의 『일반 문화사(*Allgemeine Kulturgeschichte: Versuch einer Geschichte der Menschheit von den ältesten Tagen bis zur Gegenwart*)』 등을 볼 수 있다.

문화사 방법론 관련 저술들도 여럿이다. 칼 람프레히트의 『문화사란 무엇인가(*Was ist Kulturgeschichte*)』를 위시하여 알프레드 베버(*Alfred Weber*)의 『문화사회학으로서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als Kulturosoziologie*)』, 칼 포이그트(*Karl Voigt*)의 『문화사의 위상과 과제(*Aufgabe und Stellung der Kulturgeschichte*)』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테오도르 비르트(*Theodor Birt*)의 『로마의 문화사에 대하여(*Zur Kulturgeschichte Roms*)』, 발터 오토(*Walter Otto*)의 『고대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des Altertums*)』, 안톤 디에만트(*Anton Diemand*)의 『중세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des Mittelalters*)』, 쿠르트 브라이지히(*Kurt Breysig*)의 『근세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der*

Neuzeit)』 등 특정한 시대에 집중한 문화사 저서들이 한편에,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의 『아프리카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Afrikas)』, 막스 폰 뵘(Max von Böhn)의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19세기 프랑스의 문화사(Vom Kaiserreich zur Republik: eine Kulturgeschichte Frankreichs im 19. Jahrhundert)』 등 특정 민족에 집중한 문화사 저서들도 보인다.

3. 시대사

시대로 구분할 때 영어권과 독일어권 자료 모두 고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권 자료의 경우 선사 및 고대사는 각각 37권과 232권으로 매우 높았고, 반면 중세사는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윤영휘, 2016: 432). 프랑스어 서적 중에서도 고대사는 62권에 달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권윤경, 2015: 217). 이는 독일어권 소장 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562권에 달하는 독일어 역사서 중 770권이 선사 및 고대사 자료들이었고, 그중 다수가 고고학 관련 자료들이었다. 반면 중세로 특화된 자료는 『중세의 도시(Städtewesen des Mittelalters)』, 『중세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des Mittelalters)』, 『13세기 중반까지 중세 시기 독일 역사 사료집(Deutschlands Geschichtsquellen im Mittelalter bis zur Mitte des dreizehnten Jahrhunderts)』, 『중세 역사 서술을 위한 사료(Quellen zur Geschichte der mittelalterlichen Geschichtsschreibung)』 등 극소수 자료에 국한되고 있다. 17세기, 18세기의 자료도 『독일 상승기(Das Zeitalter der deutschen Erhebung, 1975-1815)』, 『18세기 독일(Deutschland von 18. Jahrhundert)』 등 극히 제한적인 반면, 대부분의 자료가 19, 20세기 자료들이다.

4. 아시아

지역별로는 아시아 관련 저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한 탓에 해직 교수가 된 바 있는,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중국전문가 칼 프리드리히 노이만(Karl Friedrich Neumann)의 『동아시아 연구(Asiatische Studien)』 등 그의 저서 17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에 더해 독일에서 일본학의 태두로 알려진 칼

아돌프 플로렌츠(Karl Adolf Florenz)의 『일본연감(*Japanische Annalen*)』, 『일본 신화(*Japanische Mythologie*)』, 그리고 일본 관련 서양어 출간물들의 서지사항을 경외스러울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한 오스카 나호드(Oskar Nachod)의 역작 『일본(*Japan*)』 등 11종의 일본사 관련 저서들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 저자가 독일어로 쓴 일본사 저술도 있다. 이 저서들은 독일어로 번역된 서적들이어서 독일에 일본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아사히 신문 기자를 지낸 카지 류이치(Kaji Ryuichi)가 쓴 『일본: 문화적 조망(*Japan: ein Kulturüberblick*)』, 1912년에 출간된 히쇼 사이토(Hisho Saito)의 『일본사(*Geschichte Japans*)』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물론, 언론인이자 저술가 알브레히트 비르쓰(Albrecht Wirth)의 『한국인이란 누구인가(*Wer sind die Koreaner?*)?』 등을 위시하여 다수의 한국 관련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역사를 넘어 독일어로 된 문헌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한국을 소재로 한 독일어 서적은 40여 종이 넘는다. 이 중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망라하는 여행기가 여러 편이었고, 에른스트 폰 헤테-바르테익(Ernst von Hesse-Wartegg)의 『한국: 아침 고요의 나라를 향한 여름여행(*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 루돌프 자벨(Rudolf Zabel)의 『러일전쟁 기간 동안 한국을 관통한 나의 신흠여행기(*Meine Hochzeitreise durch Korea während des Russisch-Japanischen Krieges*)』,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의 『한국: 여행기(*Korea: Reiseschilderungen*)』, 아우구스트 해밀턴(Augus Hamilton)의 『한국: 여명의 나라(*Korea: das Land des Morgenrots*)』, 노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아침 고요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 등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문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불교, 언어, 경제, 동화 등에 대한 주제별 연구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본격적인 저서뿐만 아니라 독일 관리 알프레드 박하우젠(Alfred Backhausen)이 휴가 기간에 본 한국에 대한 보고서인 『한국에서의 일본 행정과 그 활동(*Die japanische Verwaltung in Korea und ihre Tätigkeit*)』의 경우, 책자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되어 있다. 요하네스 링케(Johannes Linke)가 1932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제출한 박사논문인 『개항 이후 한국에서의 경제 지리적 관계들의 변화(*Veränderung der wirtschaftsgeographischen Beziehungen in Korea*)』 역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문수현, 2014). 또한 1906년에 출간된 『외국에 대한 무역보고서: 한국 편

(*Handelsberichte über das Ausland: Korea*)』의 경우 얇은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되어 있는가 하면, 쿠르트 그뤼나우(Kurt Grünau)가 1898년 한국에 대해 한 강연 자료집인 『한국(Korea)』, 베를린의 민속학 협회에서 C. 고트쉐(C. Gottsche)가 행한 강연집인 『한국의 땅과 사람들(Land und Leute in Korea)』 역시도 소장되어 있어 한국에 관련한 자료들이 꼼꼼한 수집의 결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오스카 나호드의 『일본』에서 한국 편에 실린 자료들과 비교하더라도, 당시 독일어로 출간된 한국 관련한 주요한 자료들 대부분이 경성제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un, 2014).

중국에 대한 자료의 경우, 중국사 개설 자료들에 더해 개항 이후 시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중국 농민 전쟁, 중국 거주 독일인, 청일전쟁, 중국 혁명, 태평천국운동, 중국의 몰락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여러 저서들을 볼 수 있다. 인도어, 말레이어, 중국어, 터키어, 아랍어 등 동양 각국 언어에 능한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의 중국 통사인 『귀츨라프의 중국사(Gützlaff's Geschichte des chinesischen Reiches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auf den Frieden von Nanking)』, 러시아의 유명한 중국학자이던 바실리 바실리에프(Vasily Pavlovich Vasilev)의 『중국 이해하기(Die Erschliessung Chinas)』 등이 대표적이다.

5. 유럽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러시아에 대한 저서 42권이 소장되어 있어 러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사 개설서에 더해 러일전쟁, 러시아 혁명, 러시아 제국의 몰락 원인 등에 대해 여러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영국사의 경우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11권,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와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사 25권, 폴란드사 5권, 보스니아, 스위스, 벨기에에 대한 도서도 몇 권 구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고중세사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상당수의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독일사가인 게르트 부흐하이트(Gert Buchheit)의 『세기전환기의 로마(Rom im Wandel der Jahrhunderte)』, 유대계 독일사가인 자무엘 주겐하임(Samuel Sugenheim)의 바티칸 관련 저서인 『교회 국가의 생성사(Geschichte der Entstehung und

Ausbildung des Kirchenstaates)』, 이탈리아 중세와 근세사 저술인 페도르 슈나이더(Fedor Schneider)의 『이탈리아의 도시와 농촌공동체의 생성(*Die Entstehung von Burg- und Landgemeinde in Italien*)』을 볼 수 있다. 독일 역사가인 페르디난트 그레고로비우스(Ferdinand Gregorovius)의 『중세 도시 로마의 역사(*Geschichte der Stadt Rom im Mittelalter*)』 8권도 구비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어 장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물론 독일이었다. 독일사의 경우 150권의 저서가 있었다. 카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독일사(*Deutsche Geschichte*)』 시리즈나 루드비히 호이서(Ludwig Häusser)의 『프리드리히 대제의 죽음에서 독일연방의 건설까지 독일사(*Deutsche Geschichte vom Tode Friedrichs des Grossen bis zur Gründung des deutschen Bundes*)』, 그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바르톨트(Friedrich Wilhelm Barthold)의 『독일 도시와 시민의 역사(*Geschichte der deutschen Städte und des deutschen Bürgerthums*)』, 요하네스 얀센(Johannes Janssen)의 『중세 초기 이후 독일 민족의 역사(*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seit dem Ausgang des Mittelalters*)』 등 연대기 저서들이 먼저 보인다.

1848년 혁명 관련 자료들인 페이트 팔렌틴(Veit Valentin)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1848/49년 혁명(*Frankfurt am Main und die Revolution von 1848~1849*)』, 아론 베른슈타인(Aaron D. Bernstein)의 『1848 혁명의 날들(*Die Märztage*)』, 국제 노동자 출판사(Internationaler Arbeiter-Verlag)가 1929년에 발간한 『그림으로 본 독일 혁명의 역사(*Illustrierte Geschichte der deutschen Revolution*)』, 1848년 혁명의 경험을 기록한 파울 보르너(Paul Börner)의 『한 혁명가의 기억들(*Erinnerung eines Revolutionärs*)』,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독일 혁명, 그 시원과 전개와 업적(*Die Deutsche Revolution, ihre Ursprung, ihr Verlauf und ihr Werk*)』 등 혁명 관련 저서들이 다수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저술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출간 연대가 193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 이후 경성제국대학 도서 구매 과정에 작동했을 선별 메커니즘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도서관 고원이던 이봉순의 회고를 인용한 정근식의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어 서적의 구입이 줄어들고 독일어 책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정근식, 2010: 72). 이러한 실제적인 조건에 더해 나치 체제를 이해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이에 기여했을 법하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동유럽 연

구(Ostforschung)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헤르만 아우빈(Hermann Aubin)의 1938년 판 『독일 민족의 공간과 경계(*Vom Raum und Grenzen des deutschen Volkes*)』등 독일 민족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 저서 11종이 소장되어 있다. 반유대주의자이며 나치 주의자였던 발터 프랑크(Walter Frank)의 1938년 작 『정신과 권력(*Geist und Macht*)』, 세계사를 인종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헤르만 뮐러-브란덴부르크(Hermann Müller-Brandenburg)의 『세계사의 생물학적인 토대들(*Biologische Grundlagen der Weltgeschichte*)』 등도 나치 인종주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저서라 할 것이다.

6. 세계

경성제대 도서관 소장 도서들은 이처럼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요하네스 뉘미헨(Johannes Dümichen)의 『고대 이집트사(*Geschichte des alten Ägyptens*)』, 오리엔트 역사가 프리츠 홈멜(Fritz Hommel)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역사(*Geschichte Babyloniens und Assyriens*)』도 보인다. 바빌로니아 문화에 대해서는 “바빌로니아 vs. 성서 논쟁” 관련 저서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어 흥미롭다. 독일의 아시리아 학자이던 프리드리히 텔리치(Friedrich Delitzsch)가 1902년 빌헬름 2세 황제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유대교와 구약은 바빌로니아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유발된 논쟁이었다. 그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문명이 문화적·종교적으로 구약이나 이스라엘 문화보다도 우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유대교 측과 보수 기독교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 논쟁의 결과로 독일에서 바빌로니아 지역 고고학 발굴 열풍이 불게 되기도 했다. 고문헌 자료실에서는 텔리치의 논적들이던 후고 빙클러(Hugo Winckler, 알프레트 예레미야스(Alfred Jeremias) 등의 저서들을 볼 수 있다.

문헌학자 잘로몬 레프만(Salomon Lefmann)의 『옛 인디아의 역사(*Geschichte des alten Indiens*)』, 오리엔탈리스트 페르디난트 유스티(Ferdinand Justi)의 『옛 페르시아의 역사(*Geschichte des alten Persiens*)』, 고대사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헤르츠베르크(Gustav Friedrich Hertzberg)의 『헬라스와 로마사(*Geschichte von Hellas und Rom*)』, 『로마 제국사(*Geschichte des römischen Kaiserreiches*)』, 신학자인 베른하르트 슈타데

(Bernhard Stade)의 『이스라엘인의 역사(*Geschichte des Volkes Israel*)』가 소장되어 있고, 법학자이자 역사가인 펠릭스 단(Felix Dahn)의 『게르만족과 로마족의 근원(*Urgeschichte der germanischen und romanischen Völker*)』의 경우 4권이 소장되어 있다. 역사가인 한스 에버하르트 마이어(Hans Eberhard Mayer)의 『십자군전쟁사(*Geschichte der Kreuzzüge*)』 등도 보인다.

중남미 지역학 관련 저서들도 여럿이다. 인류학자이자 사민당 출신 의원이던 하인리히 쿠노프(Heinrich Cunow)의 『잉카 제국의 문화와 역사(*Geschichte und Kultur des Inkareiches*)』, 에른스트 푸어만(Ernst Fuhrmann)의 『잉카의 제국(*Reich der Inka*)』의 경우 폭격으로 인해 베를린 국립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저서이다. 프리드리히 베버(Friedrich Weber)의 『스페인 아메리카의 옛 역사서술의 특징에 대한 기고들(*Beiträge zur Charakteristik der älteren Geschichtsschreiber über Spanisch-Amerika*)』, 나치 집권 직후 교수직에서 해임된 폴 다름슈테터(Paul Darmstädter)의 『미국(*Die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등은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서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를 망라하여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무수한 저서들을 남긴 인종주의 경향의 학자 알브레히트 비르쓰(Albrecht Wirth)의 『모로코의 전쟁(*Der Kampf um Marokko*)』, 특히 아프리카 전역을 여행한 인류학자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Das unbekannte Afrika*)』 등의 저술을 볼 수 있다.

발칸반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알브레히트 비르쓰의 『발칸(*Der Balkan*)』, 하인리히 브링커(Heinrich Brinker)의 『발칸 국가들의 역사 개요(*Abriss der Geschichte der Balkan Staaten*)』, 여행가 콜린 로스(Colin Ross)의 『발칸 전쟁에서(*Im Balkankrieg*)』, 두산 론차레비치(Dušan A. Lončarević)의 『유고슬라비아의 생성(*Jugoslaviens Entstehung*)』 등이 그것이다.

스위스 출신의 독일 문헌학자 하인리히 게츨러(Heinrich Gelzer)의 『비잔틴의 문화사(*Byzantinische Kulturgeschichte*)』의 경우 비잔틴 제국에 대한 저서이다.

7.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도서 구매 패턴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표 1 고문헌 자료실 소장 잡지의 목록과 소장사항

잡지명	소장사항
<i>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Sozialpolitik</i>	1~5권. 1921~1926
<i>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i>	9~18권. 1933
<i>Jahrbuch für Sozialpolitik</i>	1930~31, 1937
<i>Kölner sozial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i>	1932
<i>Sozialistische Monatshefte</i>	68~77권. 1932
<i>Schriften des Vereines für Socialpolitik</i>	1934년까지 전권 소장
<i>Historische Zeitschrift</i>	84~162권

있을 것이다.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잡지들 중 역사학 분야로 폭넓게 분류될 수 있는 잡지의 목록과 소장사항은 위의 표 1과 같다.

이 잡지들 중 네 종류가 사회정책 관련 잡지인 것이 먼저 눈에 띈다. 독일 사회 정책의 경우 도서관 설립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던 분야였다. 특히 강단사회주의자 협회인 “사회정책 협회(Verein für Socialpolitik)”에서 발간하던 『사회정책협회지(*Schriften des Vereins für Socialpolitik*)』의 경우 1872년에 출간된 1권부터 1934년에 출간된 186권까지 186권의 1호 등 몇 권의 결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권이 빠짐없이 소장되어 있다. 실제로 이 잡지는 1939년까지 간행되었기 때문에, 1934년까지만 구매하기로 한 것은 도서관 측에서 내린 “결정”의 반영이며, 이는 사회 정책 관련 도서들이 1930년대 초반에 주로 구비되고 있었던 흐름과 일치한다.

반면, 1859년부터 출간된 유서 깊은 역사학 잡지인 『역사학보(*Historische Zeitschrift*)』의 경우 1940년까지 계속 구매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 법률가 협회에서 발간하던 잡지인 『법률 주간지(*Juristische Wochenschrift*)』의 경우에도 39년까지 구독하고 있었다. 결국 순수 학문 분야나 법학과 같은 주요 학문 분야의 외국 저널들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이전까지는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키워드별 자료

1. 사회주의

‘Sozialismus’, ‘sozialistischer’, ‘Sozialistische’ 등 사회주의를 키워드로 하는 고문헌 도서관 소장 서적은 142권이지만, 가장 늦게 출간된 해는 1938년이었고, 그마저도 국가 사회주의에 관한 저서였다. 따라서 1938년 이후에 출간된 사회주의 서적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듯하다.

1934년을 전후하여 출간된 사회주의를 핵심어로 하는 저서들의 목록을 보자. 나치 이론가 중 한 명인 에른스트 루돌프 후버(Ernst Rudolf Huber)의 『독일 사회주의의 양상(Die Gestalt des deutschen Sozialismus)』, 콘라드 슈타인브릭(Konrad Steinbrik)의 『아돌프 히틀러의 혁명(Die Revolution Adolf Hitlers)』, 한스프리트 존스(Hansfritz Sohns)의 『제3제국에 이르는 국가 사회주의의 투쟁과 상승(Kampf und Aufstieg des National-sozialismus zum Dritten Reich)』, 일찍이 제3제국이라는 중세 시대의 관념을 부활시키는 데 기여한 보수주의 학자 밀러 판 덴 브룩(Möller van den Bruck)의 『사회주의와 외정(Sozialismus und Aussenpolitik)』 등으로 모두 국가 사회주의 관련 저서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후반 경성제국대학에서 학문 자유가 제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초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되, 1937년 이후 사상 통제가 강화된 제국대학 전체의 현실과 부합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을 법하다.

반면, 1930년대 전반까지는 다양한 사회주의 서적들을 구매하였음을 볼 수 있다. 1848년 혁명,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어서 반드시 제국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저서들만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회주의를 핵심어로 하는 독일어 자료들을 분석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두아르트 베른 슈타인의 『사회주의 과거와 현재(Der Sozialismus einst und jetzt)』 등 사회주의 역사서 3종, 사회주의와 국민경제, 농업, 자본주의 등의 관계를 다룬 저서 13종,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4종, 사회주의와 국가 및 외정에 대해 다룬 3종, 문화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다룬 1종, 미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 사회주의의

역사를 다룬 4종, 사회주의와 식민 정책에 대한 카우츠키의 저서 2권, 라살레, 생시몽, 무정부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16종, 사회주의와 사회 정책의 관계에 대한 3종,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의 『여성과 사회주의(Die Frau und der Sozialismus)』 등 사회주의의 다양한 면모를 분석한 서적들이 폭넓게 구비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로자 룩셈부르크와 프란츠 메링(Franz Mehring)이 창간한 잡지인 『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의 실천과 이론을 위한 잡지(Die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Praxis und Theorie des Marxismus)』의 14권과 15권도 소장되어 있다. 사민당 여성들이 발간하던 잡지 『평등(Gleichheit)』 편집진이 출간한 『아동 노동과 그에 맞선 싸움(Die Kinderarbeit und ihre Bekämpfung)』, 카를 그뤼네르크(Carl Grünberg)의 『런던 공산당 잡지와 1847~1848년간의 다른 자료들(Die Londoner kommunistische Zeitschrift und andere Urkunden aus den Jahren, 1847~1848)』, 독일노동자 대표단이 소비에트 최고회의를 방문한 것에 대한 자료집인 1926년 작 『소비에트의 사회주의적 건설(Der Sozialistische Aufbau der Sowjetunion)』 등 세세한 주제에 대한 책자들도 소장되어 있다. 즉 전집류 등과는 달리 선행 지식과 방향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장서 구성인 셈이며, 경성제대 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적인 관심이 폭넓고 깊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어도 좋을 것이다.

2. 전쟁

제국 경영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은 전쟁 관련 도서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일전쟁 사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치른 전쟁과 관련된 자료 등 사료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들도 눈에 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과 관련된 자료, 탱크, 화학 무기 등에 대한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전후 외교 협약을 다룬 문서들, 전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저서들도 보인다. 독일 외무부가 출간한 제1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집인 『전쟁발발에 대한 독일 문서들(Die deutschen Dokumente zum Kriegsausbruch)』 등 사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자료들도 여럿이다.⁶

⁶ 여러 전보들과 대사관보고서들이 묶여 있는 가운데, 사라예보사건에서부터 오스트리아의 최후

법학자 오토마 뷔러(Ottmar Bühler)의 저서 『국제법 전개에서 본 중립, 봉쇄, 잠수함 전쟁(Neutralität, Blockade und U-Boot-Krieg in der Entwicklung des modernen Völkerrechts)』 등 전쟁 무기 사용과 국제법 관련 저서들이 2종, 화학전, 탱크 등 무기와 관련된 저서들도 7종 소장되어 있었다. 그 외 30년 전쟁, 인도 식민화 과정에서 치른 전쟁, 중국의 전쟁 등 각국 전쟁사에 대한 도서 14종, 청일전쟁 자료 3종 등도 구비되어 있었다.

전쟁세, 전쟁 경제, 전쟁이 런던의 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전시 산업 분야, 전시 보험, 전시 재정, 전시 부양 등 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저서들이 26종 구비되어 있었다. 그렇기 하면 전쟁 원인, 전쟁의 심리학, 전쟁의 법학적인 측면, 전쟁과 사기, 전쟁과 민주주의, 독일 문화와 전쟁, 유대인의 전쟁, 전쟁의 역사, 전쟁과 문화 등 38종도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관련 저서 17종, 전후 협상과 관련된 저서 13종,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저서 2권도 소장되어 있었다.

특히 기젤헤어 비르징(Giselher Wirsing)의 『지도상 나타난 1939/40 전쟁(Der Krieg 1939/40 in Karten)』, 프리드리히 하이스(Friedrich Heiss)의 『동부전선에서의 승리: 폴란드 지역 독일 국방군의 전투에 대한 보고서(Der Sieg im Osten : ein Bericht vom Kampf des deutschen Volksheeres in Polen)』 등은 출판 연도가 1940년이어서, 이미 시작된 유럽 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나치

1930년대 일본의 주요한 동맹국이었던 나치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나치 독일과의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반영하듯 나치 체제를 여러 측면에서 다룬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관한 저서인 『독일의 초급학교(Die deutsche Jungvolkschule)』, 나치의 형법 체계를 다룬 『나치의 형법(Nationalsozialistisches Strafrecht)』, 나치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나

통첩에 대한 세르비아의 문서가 베를린에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1권, 러시아의 전시동원까지의 상황을 다룬 2권,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전쟁선포를 다룬 3권,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기까지를 다룬 4권 등 전집이 구비되어 있다.

치의 경제체제(*Wirtschaftssystem des Nationalsozialismus*)), 그 밖에도 나치의 농업 정책, 전시 경제 체제, 재정 정책 등을 다룬 여러 저서들이 눈에 띈다.

테오도어 호이스(Theodor Heuss)의 『히틀러의 길(*Hitlers Weg*)』, 콘라드 헤이덴(Konrad Heiden)의 『나치의 역사(*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등 나치 이데올로기의 성장 과정을 다룬 저서들도 소장되어 있다. 아울러 에른스트 슈레베(Ernst Schrewe)의 『파시즘과 나치즘(*Faschismus und Nationalsozialismus*)』, 베르너 슐레겔(Werner Schlegel)의 『나치주의, 마르크스주의, 볼셰비키주의(*Nationalsozialismus, Marxismus, Bolschewismus: eine dialektische Auseinandersetzung*)』 등 여타 이데올로기와 나치를 비교한 저서들도 여럿이다. 일찌감치 나치에 가담하여 돌격대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면모를 파악하고 있었을 한스프리트 존스(Hansfritz Sohns)의 1933년 작 『나치의 투쟁과 제3제국으로의 상승(*Kampf und Aufstieg des Nationalsozialismus zum dritten Reich*)』의 경우 히틀러를 포함하여 여러 나치 인사들과 사건들에 대한 85건의 사진 자료가 실려 있어 사료로서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1936년에 발간된 나치 강제 불임시술 관련 자료인 프리츠 로이터(Fritz Reuter)의 『절멸을 통한 유전자 개선: 유전병과 질병에 맞서는 투쟁에서 불임시술과 거세(*Aufartung durch Ausmerzung: Sterilisation und Kastration im Kampf gegen Erbkrankheiten und Verbrechen*)』의 경우 나치의 불임시술이 같은 시기에 일본 학계에 이미 알려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임시술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학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관심의 반영이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성장사, 정책, 집권 후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한 흔적이 도서관 소장 도서들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38년에 출간된 아힘 홀츠(Achim Holtz)의 『나치의 노동 정책(*Nationalsozialistische Arbeitspolitik*)』, 1939년에 출간된 볼프강 슐츠(Wolfgang Schultz)의 『나치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생각들(*Grundgedanken nationalsozialistischer Kulturpolitik*)』, 1937년에 출간된 알프 놀(Alf Noll)의 『나치 경제 정책의 기초들(*Grundsätze nationalsozialistischer Wirtschaftspolitik*)』 등 해외 자료들에 대한 구매가 제한되기 시작한 37년 이후에 출간된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괴벨스의 저서 『카이저호프에서 제국수상청까지(*Vom Kaiserhof zur Reichskanzlei*)』의 경우

1941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이 시기 경성제국대학 내에서 나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IV. 결 론

독일어 장서들은 다양한 역사학 방법론 저서들과 저명한 역사가들의 전집류, 전 세계 구석구석을 망라하는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목직한 세계사 및 문화사 전집류 등을 통해서 경성제대가 지향하던 보편적 교양주의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쟁 관련 자료들,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나치를 조망하고 있는 저서들,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된 후 겪게 된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대한 사회 정책 자료들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1938년부터는 총독부에서 외국 도서 및 잡지의 수입을 제한하였으며, 1938년 이후 사상 통제를 반영한 특수 도서 분류가 도입된 것은 도서관 전체를 관통하는 현실이었다(정근식, 2010: 61).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성은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1934년을 전후하여 출간된 다양한 나치 관련 저서들이 구비되고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 ‘사회주의적’을 핵심어로 하는 자료들은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졌다. 반면 나치와 전쟁 관련 자료들은 1941년에 출간된 자료들까지도 소장되어 있어서 도서 선별의 메커니즘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영어와 불어 장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제국 경영을 위한 권력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뚜렷했다. 19세기를 넘어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탐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성 등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에 대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단행본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집과 혁명사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서적들 역시도, 그 전문성과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학술적으

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선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에 대한 경성제대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관심이 투영된 자료구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1940년까지도 『역사학보』가 구매되고 있었던 데서 보이듯이, 학문의 자유가 낮은 수위에서나마 194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독일어 장서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 교육자이자 연구자, 특히 식민지 조선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서양사 분야 연구자이던 가네코 고스케가 독일사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역사서들은 영어, 불어 장서들과는 달리 경성제국대학에서 행해졌던 강의와 연구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독일 역사주의의 영향력이다. 랑케를 위시하여 드로이젠, 트라이츠키, 마이네케, 부르크하르트, 루드비히 리스 등 독일 역사주의 거장들의 저서들은 거의 남김없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가네코는 이 역사주의 거장들의 저서들을 그의 교육과 논문에 활용하였다. 리스, 마이네케, 랑케의 저서들을 강의에 활용하였고, 이들의 저서들을 가네코가 경성제대 재직 시기에 집필한 네 편의 논문들의 각주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네코 고스케는 역사주의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한 인물이었다.

물론, 전후 한국의 서양사학자들은 대체로 한국 서양사학의 기원을 전후로 소급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컨대 한국 서양사학회는 그 비조로 가네코 고스케가 아니라 김성식, 조의설 등을 꼽고 있다. 물론 가네코 고스케가 경성제국대학에서 행한 서양사 연구 활동이 한국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지는 못했으나, 주로 독일 역사주의를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연구를 행했던 그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학문 방법론을 정초하는 데 기여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성제국대학 내에 서양사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사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 이후 200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독일사 관련 논저 769편 가운데 135편이 역사이론 및 방법론, 사학사 학술동향 보고와 관련되어 있었다(안병직, 2002: 44). 역사주의와 관련된 저술이 100편을 넘고, 특히 랑케, 마이네케, 부르크하르트 연구가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호근, 2007: 51). 물론 이 두 흐름을 연결시킬 인적인

고리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주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제국대학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관한 흐름으로 간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두 흐름 간의 연결고리를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법하지 않을까.

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 심사일: 2017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3일

참고문헌

- 권윤경. 2015.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권, 209-241.
- 김기봉. 2004.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역사와 담론』 39권, 125-160
- 김영한. 2010. “드로이젠의 역사이해 해석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철학논총』 61권, 203-224.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기록학연구』 14권, 359-388.
- 문수현. 2014. “요하네스 링케와 그의 책 『개항 이후 한국에서 경제 지리적 관계들의 변화』.” 『독일연구』 28권, 259-264.
- 안병직. 2002. “국내 독일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독일연구』 4권, 27-44.
- 윤영휘. 201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역사 장서의 구성분석 연구.” 『역사와 실학』 59권, 421-458.
-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권, 39-85.
- 정준영. 2010. “잊혀진 대학의 흩어진 문서고.” 『일본학』 30권, 161-211.
- 정준영. 2011. “경성제국대학의 유산-일본의 식민교육체제와 한국의 고등교육.” 『일본연구논총』 34. 157-186.
- 조한욱. 2012. “역사주의 이전의 역사주의자, 비코.” 『역사와 담론』 61권, 423-443.
- 최호근. 2005. “19세기 말의 문화사 담론과 막스 베버의 역사적 문화과학.” 『역사학보』 186, 237-265.
- 최호근. 2007. “1945년 이후 한국에서 독일역사이론의 수용.” 『독일연구』, 14호, 49-69.

최호근. 2015. “근대역사학의 탄생과 B.G.나이부어.” 『역사학보』 225권, 263-297.

金子光介. 1936. “ランケの世界史に於ける史的發展.”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記念論文集』, 哲學篇, 135-178.

Mun, Soo-Hyun. 2014. “German Discourse on Korea during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241-267.

Abstract

The Long shadow of German Historicism: An Analysis of the German Historical Literature Possessed by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Soo-Hyun Mun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ole and status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rule of Kore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historical literature possessed by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se books will be examined and linked to the education and research that took place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analysis of the German historical literature clearly shows the intention to promote, legitimize, and facilitate the colonial regime. First, a variety of books on the historical methodology, a complete collection of a number of famous historians, and the historical literature covering every corner of the world show the ambi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s part of the “Imperial” university system to pursue academic neutrality and universal culturalism. Secondly, the intention to cope with the practical needs of running the imperial regime and facing imminent warfare is also reflected, for example, in the comprehensive literature on the related social policies, the war-related topics, and various aspect of National Socialism.

When it comes to the role of the vast body of German historical literature in the formation of history education within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significance of German historicism cannot be overlooked. It seems not to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the major works written by the masters of German historicism such as Leopold von Ranke,

Johann Gustav Droysen, and Ludwig Riess among others were possessed by Keijo Imperial University. Indeed, these books were used by Kaneko Gosuke, the only Western history professor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evident in both his education and research.

Keywords | Keijo Imperial University, Kaneko Gosuk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